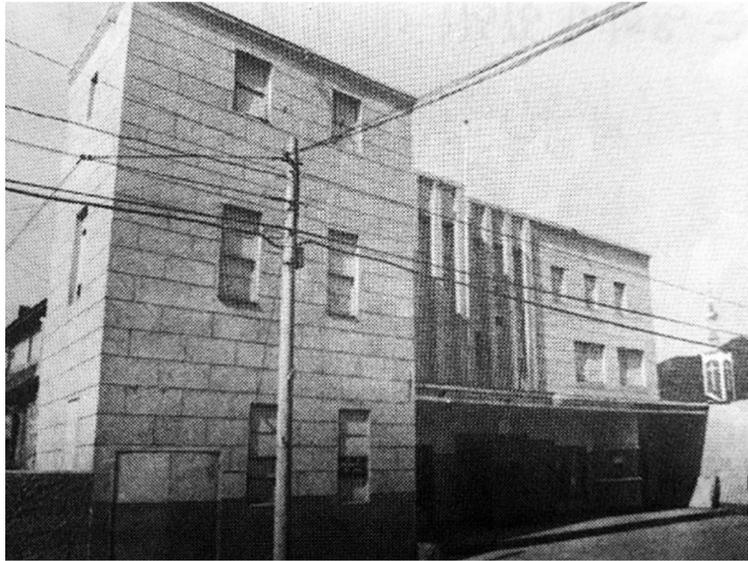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예술공간 탈바꿈...내년 문 연다

나주시 건축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미디어아트 전시장 등 조성

1930년대 들어선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 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옛 나주극장이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산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근 건축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30년대 들어선 옛 나주극장 원래 모습. (나주시 제공)

지난 26일 열린 보고회에는 안상현 부시장과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산업은 방치된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극장 내부에 기록물 전시장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전시장, 식·음료(F&B)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올해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옛 나주극장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나주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과 잠사공장 등 근대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극장 안은 2층 구조로 2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까지 영화 상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인근 광주에 소재한 대형 극장 등에 밀려 문을 닫아야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건물 전면부를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폐업 후 방치됐다. 이를 나주시가 매입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적 레노베이션(보수) 작업을 끝마치면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함께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으로 '반값 관광' 오세요

서울서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건 강진군이 최근 서울에서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강진 관광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반값 관광은 여행경비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이다.

선포식에서 강진원 강진군수가 사업을 설명하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강진 관광'에 관한 강연을 했다. 이날 재경강진군향우회와 언론사,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여행작가, 소셜미디어(SNS) 관계자, 서울·경기 마카페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 홍보대사인 가수 문희옥과 강진 출신 국악가수 김준수, 강진 오감통 음악가 '코지제즈오피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강진군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 지역 소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반값 관광'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반값 강진 관광은 2인 이상의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소비 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이날 '반값 관광' 사전 신청을 받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황칠차·동백발효식초·하멜배주 시음회와 강진 농·특산품 전시 홍보 등을 펼쳤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서울에서 반값 관광의 해 선포식을 하는 강진군의 절박함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수도권의 향우회, 여행, 관광업계 관계자들에 감사의 전한다"며 "강진군의 반값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비 촉진으로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가족의 강진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밀라노 협약' 합류...270여 도시와 먹거리 전략 공유

지속가능한 먹거리 불평등 해소

나주시가 세계 각국 도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공유하는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에 합류했다.

나주시는 전 세계적인 먹거리 정책 의사결정 장치인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에 동참한다고 29일 밝혔다.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MUFPP·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발전과 소비 불균형 문제 해소, 건강한 식생활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뉴욕, 파리, 런던, 서울 등 세계 80개국, 270여 도시가 등록했다. 국내에서는 6개 도시가 동참하고 있다.

협약 주체들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아닌 도시 단위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강조한다.

나주시는 정책협약 합류를 계기로 공공재로서 먹거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 도시와 교류망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촌 전략,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또 수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권역 포럼'과 2년 주기로 여는 글로벌 학술행사 '밀라노 어워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공식 소셜미디어에 나주시가 소개된 모습.

즈'에 참석한다. 이곳에서 나주시는 지역의 우수 먹거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을 둔 로컬푸드직매장, 나주밥상 지정업소 운영, 공공·학교급식 물류 기반시설 구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 등 민선 8기 주요 농정 발전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한편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지

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지난해 대상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밀라노 먹거리 정책협약 합류를 통해 세계 각국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한 지역 먹거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탄광 관광단지 개발 민자 투자의향서 접수

화순군이 29일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위해 옛 화순광업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관광 단지의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투자의향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선제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화순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화순군 동면 옛 화순광업소 부지 일대에 56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21만4000㎡ 규모의 복합관광단지와 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 경도 활용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투자의향서는 오는 3월20일까지 접수한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5643억원 중 민간투자 부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투자의향서 확보, MOU 체결,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는 기업의 투자와 농공단지 입주 의향을 파악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예타 통과와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기업들이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4월 개장 담양시장 점포 28곳 상인 추가 모집

담양군이 오는 30일까지 담양시장에 입점할 28곳 상인을 추가 모집한다. 담양시장은 오일장이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재건축 공사를 벌여 오는 4월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개장한다.

담양군은 지난 1차 상인(1층) 모집을 벌여 23명이 신청한 가운데 면접 심사를 통해 15곳 상인을 선정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층에 입주할 28곳 상인 지원을 받는다.

다음 달에는 2층 식당가 7곳과 3층 카페 1곳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담양시장에 입주하면 기본 3년 장사를 할 수 있으며, 3년 연장할 수 있다.

'오일장'이었던 담양시장 입차료는 16㎡당 14만4000원이었지만, 새롭게 상설시장으로 문을 여는



오는 4월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여는 담양시장 전경. (담양군 제공)

점포 입차료는 더 높아질 것으로 담양군 측은 예상한다. 이달 현재 입차료는 감정 중이다.

담양시장에 입점하려면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해야 한다.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1층 시장 상인에는 공산품, 농·수산물, 즉석식품 부문이 먼저 선정된다.

내부 시설 일부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하며 공공요금과 일반 관리비를 내야 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정책 발굴 본격화

정기회의...김승순 위원장 선출

함평군은 최근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 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을 논의했다.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권익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함평군 청년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모임을 연다.

이날 정기 회의에서는 3기 청년정책협의체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승순 위원을 뽑았다.

부위원장은 김담 위원이 선출됐으며, 일자리·교육·복지·문화분과 대표 4명도 임명됐다.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분과별 의제는 수시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환 함평군 인구경제과장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보건소 200가구에 '마음꾸러미' 전달

장성군 보건소는 지역 의료 취약가구 200곳을 대상으로 '마음꾸러미' (사진)를 다음 달까지 전달하고 29일 밝혔다.

'마음꾸러미'는 보은병과 손난로, 덧신, 영양보조식품, 건강관리책자 등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물품들로 채운 '선물 상자'다.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마음꾸러미'를 나눠주고 있다.

이들은 한랭 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건강 확인, 질환 증상 관리, 정신 상담 등을 진행한다.

'마음꾸러미' 전달은 오는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24일 '마음꾸러미' 전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군수는 "동절기는 의료취약가구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